

##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 탐색\*

—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이 관희\*\*

### < 次例 >

- I. 들어가며: 텍스트 읽기와 문법의 관계 설정
- II. 신문 텍스트에서 '-도록 하-'와 '-게 하-'의 사용 빈도
- III. '-도록 하-'와 '-게 하-'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
- IV. 주체 인식 실패의 원인: '-도록 하-'와 '-게 하-'의 의미 비교
- V. 논의의 확장과 남는 문제

### I. 들어가며: 텍스트 읽기와 문법의 관계 설정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진통을 거친 국어과 교육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했다는 인상이다. 수많은 비판과 대안 모색 속에서 일부 학년의 교과서는 검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학년의 교과서들도 개발되고 있다.

\* 본고는 텍스트 이면의 원리로 작용하는 '문법의 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남가영(2009), 주세형(2010)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다만 남가영(2009)에서 '문법 지식의 응용화'라고 언명한 것을,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로 그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논문을 꼼꼼히 검토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또한 논문의 수정 과정에서 지도를 해 주신 한성대 이은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 인재개발 양성팀 연구원

두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는 동안 ‘텍스트’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텍스트 중심 교육과정’<sup>1)</sup>으로까지 규정 (이재기, 2007)되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시 선택 과목 ‘독서’와 ‘문법’을 결합하여 문법 지식과 체계에 기반한 분석적 ‘텍스트’ 읽기를 강조(송현정, 2010)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교육과정에서의 의도와 지향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중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준다. 먼저 2007 개정의 경우, 7차 교육과정에서의 ‘텍스트’가 ‘본질, 원리, 태도’를 익히기 위한 자료로만 존재했음에 비해, 2007 개정에서는 ‘텍스트’가 ‘지식, 기능, 맥락’을 통어(通御)하는 조직자로 기능함(이재기, 2007: 88-89)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각 학년별로 대표성을 띠는 텍스트 종류<sup>2)</sup>를 분산 배치하여 한 편의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지향이 과연 ‘텍스트’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기

- 1) ‘텍스트 중심’과 더불어, ‘맥락 중심’ 역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7차에서는 ‘맥락’과 분리된 지식과 기능이 과편적으로 제공되었음에 비해, 2007 개정에서는 텍스트와 맥락의 교섭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국어 능력은 ‘맥락’ 속에서 실현되며, 맥락을 구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텍스트’라는 점에서 ‘맥락 중심’과 ‘텍스트 중심’은 결국 같은 지향점을 지닌다(김혜정, 2007: 300).
- 2) ‘텍스트 유형’과 ‘텍스트 종류’의 명칭 및 범주에 대한 논의는 ‘Textsorte’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조국현(2001)에서는 전자를 ‘낱낱의 사물 또는 사실 관계를 특정한 요소에 따라 함께 묶는 과정, 즉 유형화 작업의 결과’로, 후자를 ‘일정한 유형에서 갈라진, 또는 이에 속하는 하위 단계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역시 대체로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데,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이 ‘텍스트 유형’에 가깝다면, 그 구체적 실현태인 ‘기사문, 사과문, 요청문, 논증문, 광고, 설명문’ 등은 ‘텍스트 종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박진용(1998), 이도영(2007)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텍스트 유형’인지, ‘텍스트 종류’인지를 따져 각각에 대해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는 ‘텍스트 종류’가 아닌 ‘텍스트 유형’이 교육 내용의 전면에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 하는 반문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7차 교육과정이 텍스트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지식과 기능의 과편적 학습'으로 성급하게 치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내용 체계 상에서 '텍스트'를 범주화한 '실제' 요소가 '내용' 요소의 상단에 위치하든, 하단에 위치하든<sup>3)</sup> 결국 교과서에서의 구현이나 실제 수업의 국면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언제나 '제재', 즉 '텍스트'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텍스트 종류의 체계화를 시도하면서도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방식 혹은 내용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텍스트 종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각 텍스트의 양식적 특성에 대한 이해일 것인데, 정작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텍스트의 수준을 정교화<sup>4)</sup>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텍스트 이해와 표현의 도구'이

### 3) 편집을 위해 일부 용어는 축약했으며, 음영과 강조는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7차 교육과정 [읽기]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 [읽기] 영역	
· 읽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 읽기의 원리 ○ 낱말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 읽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b>읽기의 실제</b> - 정보 전달    - 설득 - 사회적 상호 작용    - 정서 표현	
<b>· 읽기의 실제</b> - 정보 전달    - 설득 - 정서 표현    - 친교			지      식	기      능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b>맥락</b> ○ 상황 맥락 ○ 사회·문화적 맥락	

- 4) 2007 개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별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이재기, 2007)이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수준과 범위'의 제시가 타당하지 않거나 일부에서는 아예 제시조차 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예컨대 8학년 '읽기' 성취 기준 중 하나인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읽고 글의 짜임을 비교한다.'에서 제시하는 수준과 범위는 '유사한 소재의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인데, 이는 성취 기준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텍스트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최지현(2007)에서는 이 문제의

기 때문이다. 결국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김혜정(2007: 314)의 지적대로, 달라진 '형식'을 제안하면서 그러한 그릇이 담을 '내용'까지 다양해진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텍스트'의 비중이 이전과 달라진 선택 과목은 역시 '독서와 문법'이다. '문학'은 단일 영역이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되었고, '화법과 작문'은 '표현'이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구어와 문어의 매체 특성 차이가 반영된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비해, '독서와 문법'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찾아보기 힘든 '결합'인데, '독서'는 의미 이해를 본질로 하는 과목이고, '문법'은 국어에 대한 이해와 언어 현상의 탐구를 지향하는 과목이라는 점이 결합의 근거이다.

그렇지만 '독서'에서의 '이해'와 '문법'에서의 '이해'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에 앞서, '문법' 과목이 어떤 과목과 '통합'되어야 가장 정당한가의 물음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이유로 인해 결국 '독서'와 '문법'은 하나의 과목으로 '결합'되었으나, 고시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결합'일 뿐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독서'의 '지식과 기능'을 '문법'의 '국어와 읽기', '국어와 삶'에, '독서'의 '글의 유형'을 '문법'의 '국어와 규범', '국어와 열기'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내용 요소들을 단순히 병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와 '문법'의 '통합'은 철저히 '텍스트'에 기반하여 이루어질<sup>5)</sup> 때, 둘

원인을 '내용 요소의 수준과 범위'가 아닌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한다는 데에서 찾는데, 전자가 아닌 후자를 제시하다 보니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텍스트 종류'로 대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5)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둘 사이의 통합 근거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법교육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중핵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김은성 (2008: 353)의 진술은 '텍스트'의 도입에 따른 문법교육의 긍정적 변화상을 보여 준다.

사이의 온전한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 ‘문법’의 다양한 부면들이 실제의 ‘언어 활동’ 속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교육 내용화되었을 때, 이들을 연계하고 통어할 수 있는 지점은 다름 아닌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을 ‘문법’에서 찾고자 한다.<sup>6)</sup> 텍스트의 이면에 존재하는, 의미 구성 차원으로서 문법이 지니는 적극적인 의의와 역할을 온전히 조명한다면, ‘텍스트 이해와 표현의 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텍스트 종류의 나열이 아닌 위계적 수준을 담보한 텍스트 유형에 대한 학습을 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서와 문법’의 정합적 ‘통합’ 가능성 역시 결국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문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문법의 탐구’를 통한 보다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읽기’가 가능할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가’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 탐색되며, 말해지는 방식은 문면에 드러난 언어 형태와 그러한 언어 형태를 이루는 문법 구조에 의해 드러나기 때문이다.<sup>7)</sup>

---

무엇보다도, 텍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문법교육에서는 언(국)어의 세계를 보다 편 진하게 학습자에게 보여 줄 수 있다. 순수하게 언어적 차원에서 체계적 구조체로서의 언어의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화용적인 돌발성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안에서 의사소통 차원의 체계성을 내재하는 ‘사용으로서의 언어’의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언어의 세계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가치 체계의 반영과 이를 둘러싼 언어 주체의 언어적 실현 과정을 보여 줄 수도 있다(김은성, 2008: 353).

- 6) 물론 문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담대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와 관련된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전략, 기능, 원리’ 등의 내용 요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학습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차원에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문법’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7) 이 점에서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본고의 논의가 텍스트 중심의 문법 이해인가, 문법을 통한 텍스트 이해인가’의 문제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두 방향 모두 국어교육과 문법교육의 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후자일 것이다. 텍스트가 문법교육 내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문법'으로<sup>8)</sup>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의 가능성을, 실례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sup>9)</sup> 보다 구체적으로, '신문 기사문'이라는 텍스트와 '-도록 하-'와 '-게 하-'라는 문법 요소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대한 주의와 집중이 요구됨을 논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언어 탐색의 결과로 획득한 문법 지식이 학습자의 언어 활동에서 어떠한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의미화하고자 한다(남가영, 2009: 314)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과 '-게', 좀 더 범위를 좁혀 '-도록 하-'와 '-게 하-'의 빈도를 밝히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도록 하-'와 '-게 하-'가 쓰인 문장의 의미를 모아 화자가 인식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록 하-'와 '-게 하-'가 사태와 연관된 주체들의 관계를 서로 다르게 표상할 수 있는 가능

---

하나의 단위로만 기능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김은성(2008: 350)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문법교육의 내적 논리에 맞게 문법교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텍스트와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방향성의 일면을 논증하고자, '-도록 하-'가 지니는 의미·기능적(문법적) 특성이 신문 텍스트를 읽을 때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 8) '으로'라는 조사는 '수단, 도구' 혹은 '방법, 방식'의 의미를 지닌다. 한때, 국어교육 내에서 문법 영역의 위상과 관련하여 '문법의 도구성' 논쟁이 불거진 적이 있다. 이른 바 통합론(주세형, 2005)과 신독자론(신명선, 2006a)의 담론이 그것인데, 남가영(2007)에서는 이를 두고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 읽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관희(2008: 17-27)를 참조할 수 있으며, 남가영(2008)에서는 이를 '언어를 실천적 작용소로 다루어 보는 경험'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밝혀 둘 것은 문법을 '활용'한다는 것이 결코 문법 지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문법 인식의 국면을 '존재로서의 지식'을 넘어 '작용·사용으로서의 지식'으로 확장하게 한다는 점이다.

- 9) 심사본에서의 본고의 제목은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였다. 이에 대해, 본고의 논의는 문법으로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설계할 필요성을 논구하는 정도이지, 설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심사 의견이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교육의 국면에서 본고의 논의가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 설계되고, 어떤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되는 논의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성을 발견하고, IV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따져 보고자 한다.

## II. 신문 텍스트에서 ‘도록 하’와 ‘게 하’의 사용 빈도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신문 텍스트는 고유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sup>10)</sup>이다. 또한 기능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도(報道)’의 속성이 강하며,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인식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실 정보의 객관적 전달을 주요 기능으로 갖는 신문 기사문이 실제로는 사실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강하게 담아내는 현상(김봉순, 1999: 58)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기본 기능은 ‘보도’이면서도, 특정 사건이나 사태를 전달할 때 필자의 목소리가 담긴다는 것이다.

이렇듯, 객관성을 목표로 하는 신문 텍스트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신문 텍스트의 생산자가 사건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주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반영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10) 앞서 논의했듯이, 신문 텍스트와 같은 구체적인 텍스트 '결과물'을 텍스트 유형으로 범주화할지, 텍스트 종류로 범주화할지의 문제는 본고의 논의를 벗어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장르(genre)로 명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세형 외 역(2007)에서는 '장르'를 '사회적 과정(genre as social process)'으로 보아 '묘사, 설명, 지시, 주장, 서사' 등을 장르로 보고, 보고서, 서평, 신문 기사 등의 구체적 텍스트들은 다중 장르의 산물로 인식한다. 한편 남가영(2009: 314)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장르 이론들에서는 '문화적으로 인지되는 맥락 안에서의 언어 사용과 그 사회적 기능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언어 학습 맥락에 적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언명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되, 용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자 한다. '지금-여기'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언어적 성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 내느냐'일 것인데,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기자의 '태도'와 달리, '주체들 간의 관계 인식 양상'은 간접적이고 미묘하게 감추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본고는 '주체들 간의 관계 인식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어의 중요한 문법 형태 중 하나인 '연결 어미'에 집중하는 것이라 본다. 국어의 연결 어미는 분절된 두 사태 간의 접속 관계를 긴밀히 통제하는 언어 형식(유혜령, 2005: 99)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결 어미는 사건이나 사태, 그리고 그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지로, 필자는 문장을 생산할 때 계속적인 선택 과정을 거쳐 자신의 심리를 연결 어미를 통해 표출한다. 그렇기에 연결 어미를 둘러싼 통사적 환경은 화자가 사태를 재조직하는 양상을 드러나게 할 수 있으며, 독자는 이러한 양상을 심층적으로 인식해야 비로소 필자의 '숨겨진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연결 어미의 이러한 의의를 밝히기 위해, 우선 '-도록'과 '-게'가 신문 텍스트에서 쓰이는 빈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록'과 '-게'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것<sup>11)</sup>으로 보는데, 둘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빈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신문 텍스트를 신문 텍스트답게 만드는 주

11) 대표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아래와 같은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록'과 '-게'에 대한 사전의 기술은 아래와 같은데, 결합 가능한 서술어의 조건에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미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 사이의 미세한 의미 차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에도, 그 성과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도록[어미] 『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뒤에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 -게[어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뒤에 '는',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요한 문법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도록 하-'와 '-게 하-'가 쓰인 빈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과 '-게'의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말뭉치 분석은 아니지만,<sup>12)</sup>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의 기사 통합 검색 시스템(KINDS)을 활용<sup>13)</sup>하여 '-도록'과 '-게'가 쓰인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였다. 이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였는데, 신문 종류는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sup>14)</sup>로, 기간은 2010년 3월 1일에서 31일까지로 제한했으며, 이 중 정치 면과 사회 면<sup>15)</sup>만을 검색하였다.

12) 개인 연구의 한계상 방대한 규모의 말뭉치를 구축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다만, 사용 빈도에 대한 직관을 실제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에 구축된 말뭉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세종 계획 21 말뭉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최근의 신문 텍스트를 살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러한 방법은 배제하였다. 실제로 이은희(2006)에서는 세종 계획 말뭉치 중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구축된 500만 어절 말뭉치를 활용하여 '-도록'과 '-게'의 용례를 추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록'과 '-게'를 중심으로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어의 품사 종류를 살핀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와는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13)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각주 12번에서 지적한 연구 방법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스템상에서 이미 방대한 규모의 1차 말뭉치를 구축·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전체 기사문을 검색한 결과, 1,203건의 기사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1차 말뭉치 중 '-도록'과 '-게'를 포함한 기사문을 2차 말뭉치로 가공하여 활용한 셈이다.

14) 신문사나 소속 기자의 성향에 따라 특정 문법 형태를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자에 의해 작성된 기사는 이른바 데스크의 교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신문사별로 문장 구성에 대한 일정한 성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15) 정치 면과 사회 면을 선택한 것은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 인식 양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지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지면에 비해, 정치 면과 사회 면의 기사에는 다양한 주체가 사태 참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도록'이 쓰인 기사 260건, '-게'가 쓰인 기사 156건을 추출하였고, 이를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 '깜짝새(SynKDP) 1.5'에 적용하기 위해 2바이트 문서로 변환하여 전체 119,360 어절의 신문 텍스트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신문 텍스트 말뭉치 속에서 '도록'과 '게'라는 형태가 쓰인 용례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록'이 374회, '게'가 774회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도록'과 '게'는 비단 연결 어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어, 어미가 아닌 요소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그 결과, '도록'은 374회 모두 연결 어미 '-도록'으로 쓰였고, '게'의 경우 322회만 연결 어미 '-게'로 쓰였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신문 텍스트에서 연결 어미 '-도록'과 '-게'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52회 더 많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소설, 신문 기사, 잡지, 인문·사회 과학 서적, 실용 서적 등의 문어 말뭉치 속에서 어미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박진호(2003)의 결과와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박진호(2003: 88)에 의하면, '-게'는 65,144회 출현하여 전체 어미 가운데 열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도록'은 그 10% 정도인 6,001회가 쓰여 40위 정도의 빈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범박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문어 말뭉치에서는 '-게'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은 반면, 신문 텍스트에 한정하여 살피면 '-도록'이 좀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만으로 '-도록'이 신문 텍스트를 신문 텍스트답게 만드는 유효적 문법 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텍스트와 특정 문법 형태를 단순하게 일대일로 대응시켜서는 그 속에 개재된 필자의 의도를 온전하게 포착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남가영(2009)과 같이, 특정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핵심적인 문법 형태를 분석하거나 앞으로 전개할 본고의 논의에서와 같이 상호 교체 가능한 문법

형태 쌍 중에서 특정 문법 형태가 두드러지게 자주 쓰임을 밝히는 방식이 요구된다.

특히 '-도록'과 '-게'의 경우, 사전의 기술과는 달리, 복잡다단한 의미 양상을 지니며 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신문 텍스트에서의 '-도록'과 '-게'의 사용 빈도를 정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두 요소 사이의 의미 범주를 제한하고 '교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빈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도록'과 '-게'는 '결과'<sup>16)</sup>의 의미로 다루어져 왔다(이은경, 1996; 김광해 외, 1999; 장광군, 1998; 윤평현, 2005). 즉, 후행절 사태의 영향으로 선행절 사태의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록'과 '-게' 각각에 대해, 보다 미시적으로 의미 범주를 논구한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도록'의 경우, '결과'라는 핵심 의미를 세분화하면, '목적', '도급(到及)',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 성과들이 있다. 김혜성(1993)은 '-게'와의 교체 가능성을 일차 기준으로 '-도록'이 쓰인 구문을 두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여기에 '이미, 벌써와의 공기 관계', '상위문과의 관계'를 추가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도록'의 의미를 범주화한다.

16) '결과'라는 용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윤평현(2005)에서는 '인과' 관계 접속어미로 '-아서, -니까, -므로, -느라고' 등을 제시하며, '-도록'은 '결과' 관계 접속어미로 다룬다. 전자는 선행절 사태를 전제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선행절 사태가 예정만 될 뿐,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과'라는 용어 속에는 이미 '결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의 범주가 중복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도록'에는 '목적'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 '목적' 관계 접속어미 '-러, -려고, -고자'와 의미상 중복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lt;표 1&gt; '-도록'의 의미 범주(김혜성, 1993)

비 고	유형 ①	유형 ②
'-게'와의 교체 가능 여부	부자연스러움  • 밤이 새도록('새게') 놀았다.	자연스러움  • 아이가 놀도록(놀게) 내버려 두었다. • 겁이 나도록(나게) 무서웠다.
'이미, 벌써'와의 공기 관계	부자연스러움  • ("이미) 날이 밝도록 못 잤다.	자연스러움  • 나는 이미 그가 공부하도록 설득했다.
상위문과의 관계	상위문과 같이 시간의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즉, 선후 관계가 아닌 동시 진행의 의미를 지닌다.  • 날이 밝도록 잤다.	상위문이 내포문보다 시간적으로 선 행한다.  ② 소리가 들리도록 창문을 연다. ④ 목이 메이도록 슬프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이미, 벌써'와의 공기 관계, 상위문과의 관계는 '-게'와의 교체 가능 여부라는 일차 기준에 뒤따라오는 것들이어 세밀한 변별 기준이 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유형 ①에 해당하는 '-도록'은 '도급'의 의미로 한정되지만, 유형 ②의 '-도록'은 '목적(②)', '정도(④)'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은정(1983)에서는 '-도록'의 의미를 보다 세분하여 <표 2>와 같이 다섯 범주로 나눈다. 이 중, '행위'는 청유문과 명령문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성상'은 선행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로 제한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동작'과 함께 '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록'의 의미는 크게 '도급, 정도, 목적'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7) 한편, 이양혜(1998)에서는 '-도록'의 의미로 '도달성', '예정성', '목적성'을 제시하는데, '정도'를 '도달성'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 '예정성'과 '목적성'의 의미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또한 사동형 문장들만을 '목적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단지 결과의 예정이나 사역이거나의 기준으로만 분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정성'은 '목적성'에 포함될 수 있다.

〈표 2〉 '-도록'의 의미 범주(이은정, 1983)

의미	세부 의미	예시 문장	'-게'와의 교체 가능성
① 도급	~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가 지도록 일했다.</li> <li>▪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못 냈다.</li> </ul>	교체 불가
② 정도	~할 정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라보도록 변했다.</li> <li>▪ 슬프도록 아름다웠다.</li> <li>▪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li> </ul>	교체 가능 <sup>18)</sup>
③ 행위	청유나 명령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가도록 하자.</li> <li>▪ 책을 읽도록 해라.</li> </ul>	교체 불가
④ 동작	행동이나 작용이 ~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들어가도록 허용한다.</li> <li>▪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li> <li>▪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한다.</li> </ul>	교체 가능
⑤ 성상	성질이나 상태가 ~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한다.</li> </ul>	교체 가능

다음으로, '-게'의 의미는 '-도록'과의 교체 관계를 따진 위의 논의에서도 자연스럽게 추출된다. 즉, '목적', '정도'의 의미는 '-도록'과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만, '꽃이 예쁘게 피었다.'에서의 '-게'는 '-도록'이 지니지 못한 '상태'<sup>19)</sup>라는 의미를 변별적으로 갖는다. 정리하면, '-도록'과 '-게'는 '목적, 정도'의 의미는 공통으로 지니면서, '도급'과 '상태'의 의미는 각각 '-도록'

18) 이 경우, '몰라보게, 배가 터지게'는 가능하지만 '슬프게 아름다웠다'는 어색하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9) '-도록'과 교체가 불가능한 '-게'의 의미 범주를 '상태'라는 용어로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사와 결합하는 '-게'는 '-도록'과 교체가 가능하지만 형용사와 결합하는 '-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태'의 '-게'는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이렇게, 높게, 가볍게' 등에서처럼 과생접사로 쓰이는 경우와 '-게'가 쓰인 선행절이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 등의 다양한 용례를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현경(2006)을 참조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도록'과 교체가 가능한 '-게'에 논의의 초점이 놓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윤평현(2005), 장광군(1998)의 범주화 및 용어 사용에 따라 '-게'의 의미 범주를 '목적, 정도, 상태'로 나누고자 한다.

과 '-게'만이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물이 빠지도록(빠지게) 그는 배수구를 뚫었다.
- (2) 그는 나에게 술을 마시도록(마시게) 했다.

그런데 (1)의 '-도록'과 '-게'는 전형적인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반면, (2)에는 '-도록(-게)'의 후행절 서술어가 대동사로 실현되어 '사동'의 의미가 추가된다는 점<sup>20)</sup>을 특기할 만하다. 즉, 나에게 술을 마시게 할 '목적'으로 그가 '지시, 권고, 유도' 등의 '사동(使動)'을 행했다는 것이다.<sup>21)</sup> (1)과 (2)는 선행절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후행절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2)에는 '사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본고에서는 (2)에서 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도록 하-'와 '-게 하-'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범주화하면 '-도록'과 '-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 양상을 보이며, '목적'에는 구문 자체가 '목적성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도록 하-'와 '-게 하-'가 포함된다.

20) '-게'의 경우, 후행절 서술어로 '하-'를 취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윤활유는 엔진 소리를 부드럽게 한다.'의 예에서와 같이 '-게'에 형용사가 결합되어 있으나 이는 행위를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동 구문으로 볼 수 없다(유현경, 2006: 101). 이 경우에는 형태적으로는 '-게 하-'의 모습을 보이지만 '상태'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21)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술을 마시도록 지시했다.' 역시 '지시하다'가 지니는 어휘적 의미 때문에 '사동'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어휘적 의미에 기인한 '사동'이 아닌 '-도록(-게) 하-' 구문 자체가 지니는 사동의 의미를 다루고자 하기에, 후행절 서술어가 사동의 의미로 실현된 용례는 '목적'의 범주에 포함할 뿐, '목적성 사동'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표 3〉 '-도록'과 '-게'의 의미 양상

	'-도록'	'-게'
변별 자질	도급	상태
공통 자질	정도	
	목적	
	목적성 사동 ('도록 하', '게 하')	

이러한 의미 범주를 고려하여 본고에서 구축한 신문 텍스트 말뭉치에 서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도록'의 경우, 전체 374회 중에서 '도급'이 8회, '정도'가 1회, '목적'이 364회 발견되었으며, '목적'의 364회에는 '목적성 사동'의 '-도록 하'가 227회 포함된다. 이에 반해, '-게'는 전체 322회 가운데 '상태'가 291회, '목적'이 31회 사용되었는데, '목적'의 31회 중 27회는 '목적성 사동'의 '-게 하'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의미 범주에 따른 '-도록'의 사용 빈도

의미	출현 빈도	용례
도급	8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기성 전 원장이 사임한 지 3개월 이 넘도록 후임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있다(경향, 2010.3.20.).
정도	1회	• 국무부 건물을 향하여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질러댔다(경향, 2010.3.21.).
목적	36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는 동안 검사실 문을 열어두고, 아버지도 바로 옆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조처했다”며(한겨레, 2010.3.26.)</li> <li>• 김 모 씨에게 과 전 사장을 돌도록 지시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느냐는(동아, 2010.3.26.).</li> </ul> <p>[목적성 사동('도록 하')]: 227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대표는 측근인 노철래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 사무총</li> </ul>

		장 등과 접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 2010.3.25). • '노동정량법'은 단위 시간당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노동량에 기초해 노동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노동결과를 평가한 뒤 보수를 지불하도록 했다(경향, 2010.3.30.).
기타	1회	• 선거와 관련된 사건은 되도록 <sup>22)</sup> 빨리 끝내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경향, 2010.3.5.).
총계	374회	

〈표 5〉 의미 범주에 따른 '-게'의 사용 빈도

의미	출현 빈도	용례
상태	29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이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2010.3.26.).</li> <li>인터넷에는 동영상 하나가 빠르게 퍼졌다(동아, 2010.3.18.).</li> <li>실종자들의 애듯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경향, 2010.3.29.).<sup>23)</sup></li> <li>추첨으로 후기 일반계고에 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된다(한겨레, 2010.3.31.).<sup>24)</sup></li> </ul>
목적	3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동아, 2010.3.24.).<sup>25)</sup></li> <li>한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자신들의 갓난아기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 아기를 굽어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한겨레, 2010.3.4.).</li> </ul> <p>[목적성 사동(-게 하-): 27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나라당은 개선안에서, 퇴직한 관·검사가 1년 전까지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했다(경향, 2010.3.23.).</li> <li>독서 기록도 지정 도서를 읽게 하는데 학교별로 다 똑같다(경향, 2010.3.7.).</li> </ul>
총계	322회	

22) '되도록'의 '-도록'에 대해 이양혜(1998)에서는 단어 형성의 기능으로, 장광군(1998)에서는 어휘 조성적 의미로 분류한다. 연결 어미로 쓰이는 '-도록'과는 다른 양상이지만, 그 출현 빈도가 1회에 그친다는 점에서 논의의 가치가 높지 않다.

23) 각주 20번에서 언급한바, '-게 하-'가 사동의 의미로 쓰이지 않은 용례이다.

24) 사동형 '-게 하-'와 대비하여 '하-'의 피동형 '되-'가 쓰인 '-게 되-' 구문이 87회 발

요컨대 본고에서 구축한 신문 텍스트 말뭉치에서 '-도록'의 대부분은 '목적'의 의미로, '-게'의 대부분은 '상태'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 주목하는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목적'의 의미는 거의 대부분 '-도록'에 의해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게 하-'에 비해 '-도록 하-'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목적'의 '-도록', '목적성 사동'의 '-도록 하-'는 같은 의미 범주의 '-게', '-게 하-'와의 교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문 텍스트라는 장르를 대표할 수 있는 문법 형태이다.

### III. '-도록 하-'와 '-게 하-'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

III장에서는 신문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기능하는 '-도록 하-'의 의미를 모어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문제를 '-게 하-'와의 비교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sup>26)</sup> 이를 위해, 신문 텍스트에서 '-도록 하-'가 쓰인 문장과 '-게 하-'가 쓰인 문장을 모어 화자가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견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은희(2006: 8)에서도 '-게 하-'에 비해 '-게 되-'가 두 배가 넘는 빈도를 보임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게 하-'와 달리, 피동형 '-게 되-'의 '-게'는 '-도록'과의 교체가 어색하다는 점에서 '목적'의 의미보다는 '상태'의 의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25) 각주 21번에서 밝혔듯이, 본고에서는 후행절 서술어의 어휘적 의미에 사동성이 포함된 경우는 '목적성 사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4회의 용례 모두 후행절 서술어가 '만들다'라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넓게 보면 '-게'가 '목적'의 의미로 쓰인 모든 용례에서 '사동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6) II장에서는 '목적'의 '-도록'과 '-게'의 의미 범주 전체 빈도도 다루었지만, III장과 IV장에서는 '목적성 사동'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후행절 서술어가 대동사로 실현된 '-도록(-게) 하-'의 경우에 학습자들이 주체 파악을 훨씬 어려워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신문 텍스트에서 '-게 하'에 비해 '-도록 하'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면 여기에는 필자의 의식적·무의식적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인데, 이를 모아 화자의 언어 직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도록 하'가 쓰인 문장과 '-게 하'가 쓰인 문장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필자가 후자에 비해 전자를 더 많이 쓰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며, 따라서 '-게 하'와 변별되는 '-도록 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험은 신문 텍스트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한 후, 자신이 파악한 의미를 기술해 보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도록 하'가 쓰인 문장과 '-게 하'가 쓰인 문장을 번갈아가며 제시하였다. 실험 과정 속에서 특정 문법 형태의 패턴에 익숙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①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국정 현안에 대해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정책 마케팅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경제, 2009년 1월 4일

- ② 경찰은 노인 등 취약 계층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측에 ATM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 세계일보, 2009년 1월 16일

- ③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를 인계했을 때를 대비해 국방부에서 작전 계획을 새롭게 만들도록 했다.  
- 세계일보, 2009년 2월 28일

- ④ 부산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자활센터 18개소에 35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 매일경제, 2009년 1월 6일

- ⑤ 안병만 장관은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점수 위주가 아닌 잠재력과 소질을 감안한 대입 전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문화일보 2009년 2월 9일

실험은 2010년 4월 19일에 서울 소재 H 대학교 1학년생 두 집단<sup>27)</sup>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은 시간 차를 두고 이루어졌으며, 두 집단에게 각각 <표 6>의 문장을 순차적으로 제시한 후, 주체와 행위에 초점<sup>28)</sup>을 두어 의미를 재생하여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각 문장의 제시 시간은 5초로 제한했으며, 피험자들이 의미를 기술하는 시간은 1분 정도로 충분히 부여하였다.

<표 6> 실험 집단에게 제시한 문장

ⓐ 집단(35명)	ⓑ 집단(35명)
① 나서도록 할	● 나서게 할
● 내보내게 할	② 내보내도록 할
③ 만들도록 했다	● 만들게 했다
● 제공하게 했다	④ 제공하도록 했다
⑤ 마련하도록 했다	● 마련하게 했다

피험자들이 기술한 문장 의미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도록 하-'와 '-게 하-'가 쓰인 문장에서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누구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예컨대 ①-● 문장 모두 '나서다'의 주체는 '장관들'이며, 후행절 서술어 '할'의 주체는 '청와대'임에도 불구하고, 피험

27) 이들은 연구자가 강의하는 교양 국어 과목의 수강생들이다. 두 집단 모두 공과대학 학생들로, 연구자의 평소 관찰에 따라 적어도 읽기 능력 면에서 두 집단이 대체로 균질하다고 가정하였다. Ⓛ 집단은 38명, Ⓜ 집단은 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나, 실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자료가 각각 3명, 2명 발견되어 이들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실험 대상 규모의 확장과 더불어 연구 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통제하여 정합적인 통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대체적인 경향성만을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28) 이 실험은 피험자들이 '-도록 하-'와 '-게 하-'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초점이 있기에, 문장 속의 다른 정보들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의미 기술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이다.

자들이 ①과 ❶에서 주체를 파악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장 ①과 ❶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미 기술 양상은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청와대'로 잘못 파악한 경우와 '장관'으로 옳게 파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표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게 하'에 비해, '-도록 하'에서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표 7> 문장 ①과 ❶의 의미 기술 양상

	'청와대'-'나서다'	'장관'-'나서다'	의미 오독 <sup>29)</sup>	총계
① 나서도록 할	20명	12명	3명	35명
❶ 나서게 할	8명	25명	2명	35명

문장 ①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미 기술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7]과 [④-19]에서는 '나서다(마케팅을 하다, 참여하다)'의 주체를 '청와대'로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④-12]에서는 '장관들'이라는 주체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사동'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한 채, '청와대'와 '장관들'을 하나의 주체로 묶어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④-11], [④-16], [④-29]에서는 '청와대'는 사동의 주체이며, 마케팅에 나서는 주체는 '장관들'임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④-16]은 원문에는 없는 '시키다'를 포함하여 기술한다는 점, [④-29]는 '-도록'을 '-게'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29)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문장의 의미 자체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식한 경우들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④-9] 현 정부의 마케팅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들은 새로운 제시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④-20] 청와대는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해 대통령의 정책을 수용한다.

[문장 ①: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잘못 파악한 경우(청와대-나서다)]

[⑨-7]<sup>30)</sup> 청와대는 비판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방침이다.

[⑨-12] 청와대에서 대통령 중심의 정책의 비판을 수용해 장관들과 힘을 합쳐 정책 마케팅을 펼칠 것이다.

[⑨-19] 청와대는 국정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sup>31)</sup>

[문장 ①: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옳게 파악한 경우(장관-나서다)]

[⑨-11] 국정 현안에 대해 장관들이 정책 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⑨-16] 정부는 비판을 수용해 장관들에게 마케팅을 시킬 계획이다.

[⑨-29] 청와대는 장관들이 마케팅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

반면, 문장 ❶에 대한 의미 기술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④-5]와 [④-19]의 경우, 제시된 문장의 의미를 일반화시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마케팅에 나서는 주체인 '장관들'을 배제한 채, '청와대(혹은 정부)'만을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④-2], [④-24], [④-32]는 '청와대'와 '장관들'이라는 두 주체를 인식하여 주체 사이의 관계를 서술어를 통해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④-32]는 이 문장의 핵심 의미는 '청와대의 사동'보다는 '장관들이 마케팅에 나서는 일'이라고 인식하여 '장관들'만을 주체로 내세우고 있으며, [④-2]는 '명령'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활용하여 '청와대'와 '장관들'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장 ❶: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잘못 파악한 경우(청와대-나서다)]

[④-5]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해 청와대는 정책 마케팅

30) ⑨와 ⑩는 두 집단을 의미하며, 숫자는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였다.

31)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피험자들은 '-도록 하-'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여 그에 해당하는 주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도록 하-'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는 IV장 2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을 할 예정이다.

[④-19] 정부가 대통령 위주의 현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문장 ●: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옮겨 파악한 경우(장관-나서다)]

[④-2] 청와대는 장관들에게 정책 마케팅을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④-24] 청와대는 장관들이 정책 마케팅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

[④-32] 장관들이 대통령밖에 부각되지 않도록 마케팅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듯, '-도록 하-'가 쓰인 문장 ①과 '-게 하-'가 쓰인 문장 ●의 의미를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문제는 ●에 비해 ①에서, 피험자들이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의 문장 ②~⑤, ②~●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문장 '②-●'는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주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경찰은 은행 측에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내보내게) 했다.' 정도의 의미이다. 즉, 경고 방송을 내보내는 주체는 '은행'이며, '경찰'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지시하는 사동의 주체이다. 이 문장에 대해 피험자들은 <표 8>에서와 같이 '-게 하-'가 쓰인 문장 ●에 비해, '-도록 하-'가 쓰인 문장 ②에서 주체를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두 배가량 많았음<sup>32)</sup>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표 8> 문장 ②와 ●의 의미 기술 양상

	'경찰'- '내보내다'	'은행'- '내보내다'	의미 오독	총계
② 내보내도록 할	21명	12명	2명	35명
● 내보내게 할	11명	21명	3명	35명

32) 지면 관계상 문장 ②~⑤, ●~●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미 기술 예시는 생략한다.

'장관은 국방부가 작전 계획을 새롭게 만들도록(만들게) 했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문장 ③과 ●에서 역시, 선행절 서술어 '만들다'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장관'은 이에 대한 명령권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험자들은 '-게 하-'가 쓰인 문장 ●보다 '-도록 하-'가 쓰인 문장 ③에서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9〉 문장 ③과 ③의 의미 기술 양상

	'장관'-'만들다'	'국방부'-'만들다'	의미 오독	총계
③ 만들도록 했다	24명	10명	1명	35명
● 만들게 했다	12명	20명	3명	35명

문장 ④와 ● 역시 비슷한 구조를 지니는데, 간략화하면 '부산시는 자활센터가 고용기회를 제공하도록(제공하게) 했다.'의 의미를 지닌다. 역시 '-게 하-'가 쓰인 문장 ●에 비해, '-도록 하-'가 쓰인 문장 ④에서 주체들 간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런데 이 문장들에서는 앞의 문장 ①~③(●~③)과는 달리, '-게 하-'가 쓰인 문장의 주체를 옳게 인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자활센터'는 또 다른 서술어 '지원받다'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제공하다'의 주체로 인식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돈을 지원하는 행위' 자체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문장에서는 앞 문장들에 비해, 의미 자체를 오독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도록 하-'와 '-게 하-'에 근거한 비율만을 보았을 때, 여전히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의 주체 파악을 더 어려워함을 알 수 있다.

〈표 10〉 문장 ④와 ❶의 의미 기술 양상

	'부산시'-'제공하다'	'자활센터'-'제공하다'	의미 오독	총계
④ 제공하도록 했다	24명	7명	4명	35명
❶ 제공하게 했다	15명	17명	3명	35명

끝으로, ⑤와 ❶ 역시 피험자들이 '장관은 주요 대학 총장들이 대입 전 형안을 마련하도록(마련하게) 했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했던 문장이다. 이 문장 역시 문장 ④나 ❶과 마찬가지로,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 '주요 대학 총장'은 또 다른 사건 '간담회를 열다'와 연계되어 있으며, '점수 위주가 아닌 잠재력과 소질을 감안한'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삽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앞의 네 문장들과 달리, '-게 하-'가 쓰인 문장 ❶에서도 주체를 옳게 인식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이기는 해도 여전히 '-도록 하-'가 쓰인 문장 ⑤에서 주체 파악을 틀리게 한 경우가 좀 더 많았다.

〈표 11〉 문장 ⑤와 ❶의 의미 기술 양상

	'장관'-'마련하다'	'주요대학'-'마련하다'	의미 오독	총계
⑤ 마련하도록 했다	22명	9명	4명	35명
❶ 마련하게 했다	17명	13명	5명	35명

정리하면, 피험자들은 〈표 12〉에서와 같이, '-게 하-'가 쓰인 문장에서 보다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 선행절 서술어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워했다. '-도록 하-'와 '-게 하-' 모두 선행절이 후행절의 동작이나 상태의 결과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동'의 의미를 지니며 상호 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록 하-'라는 특정 문법 형태가 쓰일 때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sup>33)34)</sup>

〈표 12〉 실험 결과의 요약

	문법 형태	주체를 틀리게 파악	주체를 옳게 파악	의미 오독
문장 ①, ●	-도록 하-	약 57%(20명)	약 34%(12명)	약 8%(3명)
	-게 하-	약 23%(8명)	약 71%(25명)	약 6%(2명)
문장 ②, ●	-도록 하-	60%(21명)	약 34%(12명)	약 6%(2명)
	-게 하-	약 31%(11명)	60%(21명)	약 8%(3명)
문장 ③, ●	-도록 하-	약 68%(24명)	약 28%(10명)	약 3%(1명)
	-게 하-	약 34%(12명)	약 57%(20명)	약 8%(3명)
문장 ④, ●	-도록 하-	약 68%(24명)	20%(7명)	약 11%(4명)
	-게 하-	약 43%(15명)	약 48%(17명)	약 8%(3명)
문장 ⑤, ●	-도록 하-	약 63%(22명)	약 26%(9명)	약 11%(4명)
	-게 하-	약 48%(17명)	약 37%(13명)	약 14%(5명)

33) 이에 더해, ①에서 ⑤로 갈수록 근소하나마 주체를 틀리게 파악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선행절의 주체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도 주체 인식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후행절 서술어의 제시 방식의 문제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34) 〈표 12〉의 실험 결과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도록 하-'와 '-게 하-'가 쓰인 문장을 막론하고 주체를 잘못 파악하는 피험자의 수가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 신문 텍스트의 문장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 모어 화자가 대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율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이는 실제 텍스트 속에서의 해당 문장들이 지니는 맥락적 의미를 소거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모어 화자가 실제 텍스트 속에서 '-도록 하-'나 '-게 하-'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텍스트 내의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여 주체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IV. 주체 인식 실패의 원인: '-도록 하'와 '-게 하'의 의미 비교

III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모어 화자들은 '-게 하'가 쓰인 문장에 비해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 서술어의 주체 및 주체들 간의 관계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 IV장에서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게'와의 비교를 통해 '-도록'이 지니는 변별적 의미 특성을 밝히고, 모어 화자들의 언어 습관이 '-도록 하'의 의미 형성에 영향을 준 경우를 살펴 것이다. 이러한 論意는, 신문 텍스트의 필자가 상호 교체 가능한 환경에서 굳이 '-게 하'가 아닌 '-도록 하'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 1. '-게'와 변별되는 '-도록'의 의미: 선행절 주체의 의지 강화

주지하였듯이 '-도록'과 '-게'는 각각 '도급'과 '상태'라는 변별적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정도'와 '목적'의 의미를 공유한다. 또한 본고의 논의 대상인 '-도록 하'와 '-게 하'는 목적성 사동의 의미를 공유한다. 이 절에서는 '-도록'과 '-게' 자체가 지니는 의미 차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모어 화자가 '-도록 하'가 쓰인 문장과 '-게 하'가 쓰인 문장에서 주체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찾고자 한다.

먼저 윤평현(2005: 368)은 '-게'에 비해 '-도록'이 쓰인 문장이 좀 더 동적(動的)이고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둘 사이의 의미 차이를 파악 한다. 일반적으로 결과 구문의 초점은 선행절에 놓이지만, '-게'가 쓰인 (3)보다 '-도록'이 쓰인 (4)에서 '철수가 앉는 행위'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차이의 원인은, '-게'의 변별 의미인 '상태'는 기본적으로 '정지성(停止性)'을, '-도록'의 변별 의미인 '도급'은 '경과성(經過性)'을 지니

기에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게’와 ‘-도록’에도 이러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 (3) 나는 철수가 앉게 의자를 가져왔다.
- (4) 나는 철수가 앉도록 의자를 가져왔다.

김승곤(1986)에서도 유사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게’와 ‘-도록’이 결합할 수 있는 용언의 특성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데, ‘-게’는 동사와 형용사에 두루 쓰여 ‘완전히 어떤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고, ‘-도록’은 원칙적으로 동사와만 결합하여 ‘선행성과 동작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전자에 비해 후자에는 ‘동작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두 논의를 통해 ‘-도록’이 쓰인 문장은 ‘-게’가 쓰인 문장에 비해 ‘-도록’과 결합한 선행절 서술어의 동작성이 강조되며, 나아가 그러한 동작을 행하는 선행절 주체의 의지가 부각되는 특성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본고의 논의 대상인 ‘-도록 하-’와 ‘-게 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의 선행절 서술어 ‘기다리다’는 동작성이 약하기 때문에 ‘-게 하-’가 쓰인 (5)가 더 자연스러운 인상을 준다. 반면 (6)의 의미를 (5)와 비교하자면, ‘기다리다’의 동작성이 다소 강화되고 ‘손님’의 의지가 좀 더 부각되며, 후행절 주체인 ‘그’는 ‘손님의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허락’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 (5) 그는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
- (6) 그는 손님을 기다리도록 했다.

문제는 ‘-도록 하-’가 쓰여 선행절 서술어의 동작성이 강화되고 선행절

주체의 의지가 부각되는 문장에서 선행절의 주체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7)에서 '-도록'과 결합한 '마련하다'의 동작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마련하는' 주체인 '총장들'의 의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주체가 주어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 경우, 선행절 주체가 지녀야 할 의지성이 후행절 주체인 '장관'으로 잘못 옮겨 가서 주체 인식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7) 장관은 총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새로운 대입 전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사동의 측면에서 '-게 하-'와 '-도록 하-'의 의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서정수(1988: 43-4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다음의 경우에서 '-게 하-'와 결합하기 어색한 문장은 (8ㄱ)인 반면, '-도록 하-'는 (9ㄴ)이 어색하다고 본다. 즉, '-게 하-'가 쓰인 문장이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 비해 피사동주에 대한 지배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쓰이면 그 주체적 행동의 정도가 목적격으로 된 경우보다 강하여 사동주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게 하-'에 비해 '-도록 하-'는 사동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sup>35)</sup>

- (8ㄱ) 선생이 학생이 책을 읽게 했다.
- (8ㄴ) 선생이 학생을 책을 읽게 했다.
- (9ㄱ) 선생이 학생이 책을 읽도록 했다.

35) '-도록'을 사동형 어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김재윤(1983), 서정수(1988), 김혜성(1993) 등은 사동형 어미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윤흥현(1981) 등은 사동형 어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의 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도록'을 무엇이라 명명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도록'이 현재 쓰이고 있는 현상을 인정하고 '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일 것이다.

(9ㄱ) 선생이 학생을 책을 읽도록 했다.

한편, 사동의 범위에서도 '-게 하-'와 '-도록 하-'는 차이를 보인다. '-게 하-'가 쓰인 (10ㄱ)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반면, '-도록 하-'가 쓰인 (10ㄴ)은 간접 사동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즉, '-도록 하-'는 '-게 하-'에 비해 시킴의 의미가 약하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의 의미(이희자·이종희, 2006: 219)를 지닌다는 것이다.

(10ㄱ) 어머니는 아이가 밥을 먹게 했다.

(10ㄴ) 어머니는 아이가 밥을 먹도록 했다.

'-게 하-'에 비해 '-도록 하-'가 사동의 의미가 약하다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독자들은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 주체를 인식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sup>36)</sup> 사동이라는 의미에는 이미 둘 이상의 주체(사동주, 피사동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동의 의미가 약화된 '-도록 하-' 구문에서 피사동주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록 하-' 자체를 하나의 서술어로 오독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도록 하-'는 '-게 하-'에 비해 선행절 주체의 의지가 강조되는 의미 특성을 지닌다. '-도록'이 선행절 서술어의 동작성을 강화하는 것

36) 심사 위원 중 한 분께서는 일반적으로 '-도록 하-'에 비해 '-게 하-'의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후자를 통해서는 사동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지만 '-도록 하-'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다.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 역시 '-게 하-'를 장형 사동으로 상정하면서도 '-도록 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사실, 본고의 문제의식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신문 텍스트에서는 왜 일반적인 사동 구문인 '-게 하-'를 두고 '-도록 하-'를 더 자주 사용하는가에 의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나, '-도록 하-'에서 사동성이 약화되는 것은 결국 선행절 주체에 힘을 실어 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때의 선행절 주체가 문장 속에서 유표적으로 실현되지 않거나 독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선행절 주체에 놓였던 초점이 후행절 주체로 잘못 이양(移讓)되어 '후행절 주체+선행절 서술어'의 단일 사태로 '-도록 하-'가 쓰인 문장을 오독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 2. '-도록 하-' 구문의 오용: 주체의 단일화

일반적으로, '-도록'이 쓰인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동일성 여부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예컨대 (11)과 같이 비동일 주어로 연결될 수도, (12)처럼 동일 주어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결 어미가 붙은 절의 독립성은 동일 주어 접속문에서는 비동일 주어 접속문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아진다(이은경, 1996: 148). 다시 말해, (11)과 (12) 모두 두 사태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11)에 비해 (12)를 단일 사태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sup>37)</sup>

(11)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아버지가 손을 보셨다.

(12) 우리는 합창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런데 '-도록 하-' 구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37)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는 두 사태 사이의 독립성이 낮다고 해서 두 사태가 하나의 사태로 인식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즉, (12)가 단일 사태로 인식될 가능성 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학습자의 입장에 선다면 그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대체로 학습자들은 주어의 출현 횟수에 따라 사태의 양상을 파악하며, (12)와 같이 이른바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있다는 점에서 비동일 주어 문장인 (13)과 대비하여 동일 주어 문장으로 보이는 (14)는 피사동주가 생략된 경우가 아니면 비문으로 분류된다.

- (13) 내가 그 일을 철수가 하도록 하겠다.
- (14) 내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예컨대 (14)에 대해 김재봉(1990: 113-114)은 선행 동사 어간에 '-도록'을 붙이고 이것을 대동사화시킨 표현으로 언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어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문장이라 평가한다. 또한 남영신(2005: 608) 역시 시킴은 당사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법이므로 자신이 하게 되어 있는 일에는 쓸 수 없다는 점에서 (14)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언어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장이 적지 않게 생산된다는 점이다.

- (15) 30일(화) 오전 백령도 독도함, 광양함 방문하신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대통령, 천안함 침몰 사건 현장 방문 관련 브리핑, 청와대 홍보 수석실, 2010. 3. 30.).
- (16) 이미 지난 상하이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긴밀하게 한·중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청와대 홍보 수석실, 2010. 5. 6.).
- (17) 지난주에 집에 일이 있어서 과제를 못 냈습니다. 교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수요일까지 완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업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빠질 일이 있더라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강생이 강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2010. 4. 8.).
- (18) 먼저 2장에서는 헤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국어의 헤지 표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서구에서도 연구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가 다소 다르므로 선행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헤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학술텍스트에서 헤지가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헤지 표현을 유발하는 언어학적 요소들을 추출하여 항목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헤지 표현 유발 요소를 부각시키고 이것들이 사용되는 양상과 특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왜 헤지 표현이 학술 텍스트에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신명선, 2006b: 153-154).

(15)와 (16)은 공식석상에서 기자 혹은 일반을 상대로 한 발화이고, (17)은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상위자를 상대로 요청의 의도를 갖는 발화이다. 한편 '-도록 하-'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18)은 학술 텍스트의 서론에서 향후 논의의 방향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도록 하-'의 사동성이나 언어 경제성의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15)~(18)은 모두 비문이다.

그렇지만 언어 사용의 문법적 정확성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타당성(신명선, 2008)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다면, 이들 문장을 단순 오류로 처리할 수만은 없다. 비록 문법적으로는 오류라 하더라도 언중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특정 문법 형태 속에서는 해당 언어 사회에 작용하는 일정한 힘이 개재되기 때문이다.

(15)~(18)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 문장들이 대체로 '힘'을 지닌 상위자를 상대로 쓰였다는 점이다. 특히 (15)와 (16)은 기사화를 위한 보고의 형식을 띠다는 점에서, (18)과 같은 학술 텍스트는 관련 학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하위자의 질문 (19)에 대한 답변으로 (20ㄱ)보다는 (20ㄴ)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부장님, 저한테 그 일을 맡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0ㄱ) 글쎄, 생각해 보도록 할게.

(20ㄴ) 글쎄, 생각해 볼게.

그렇다면 '-도록 하'의 어떤 의미 특성이 이러한 사용 환경을 형성하게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 가능성을 양명희(1990)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도록 하' 구문을 파악할 때 반드시 제3자를 주체로 볼 것이 아니라 주어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고 언명하며, '-도록 하'의 의미를 '어떤 동작이 한계에 도달하여 실현될 수 있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양명희, 1990: 64).<sup>38)</sup> 즉, '-도록'이 지니는 '도급'의 의미가 '-도록 하'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sup>39)</sup>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반해 (17)의 문장 중 하나를 살피면, (21)에 비해 (22)는 '과제를 하는 동작이 한계(완성)에 도달하여 실현(제출)될 수 있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어색하지만, 제3자가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시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과 (22)는 의지를 드러내는 '-겠-'을 공유하면서도, 전자에 비해 후자가 실현 가능성을 낮추어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21)은 반드시 한다는 뜻임에 비해 (22)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의 의미를 포함(김재봉, 1990: 113)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위자를 상대로 '강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실현 불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자신의 의지는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즉, 자신의 의지를 다소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38) 한편, 서정수(1988: 44)에서 역시 '제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주어 자신의 행동 서술로 보고 있다.

39) '도급'과 '목적'의 의미를 연관짓는 이러한 논의는 '-도록'이 지니는 '정도'의 의미에 '도급'이 반영되어 있지만, '목적'은 독립적인 의미 영역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 석주연(2006)의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 (21) 제가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2) 제가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비록 문법적 정확성은 담보하지 못하더라도 일인칭 동일 주어가 쓰이는 '-도록 하-' 구문은 '의지의 완곡 표현'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형성하여 언중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sup>40)</sup>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록 하-' 구문의 사용이 일반적인 비동일 주어, 즉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존재하는 문장의 의미 파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22)의 경우, 단일 주체가 상정되어 '-도록'이 연결 어미로 기능하기보다는 '-도록 하-' 자체가 하나의 구문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구문을 자주 접하다 보니 (23)처럼 서로 다른 두 주체(경찰, 은행)가 존재하는 문장에서도 '-도록'을 연결어미로 인식하지 못하고 '-도록 하-' 구문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표적으로 드러난 주체(경찰)만을 인식하고, '-도록 하-' 역시 하나의 서술어(내보내다)로 파악하여 '후행절 주체 +선행절 서술어'의 단일 사태로 문장의 의미를 오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40) 통시적으로 '-도록 하-' 구성의 분포를 살핀 석주연(2006)에 따르면 19세기 신문류와 교과서를 막론하고 '-도록 ㅎ-' 구성이 활발히 쓰였다고 한다. 특히 교과서류보다 신문류에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도록 하-'를 신문 텍스트의 장르적 표지로 보는 본고의 논의와도 상통한다. 한편, 김재봉(1990)에서는 '-도록 하-' 구성의 최초 모습이 ④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구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언명함에 비해, 석주연(2006)에서는 18세기 초반 자료인 ④를 제시하여 '-도록 하-' 구성의 출현 시기를 앞당긴다.

④ 우리가 이 신문 출판하기는 취리흐라는게 아닌고로 갑습 혈허도록 ㅎ였고…(獨立新聞 創刊 論說, 1986)

④ 완곡히 진고흐야 바로게 ㅎ며 죠흔 일을 보거든 되도록 ㅎ며 그른 사룸을 보거든 다스리며(敬信錄 謢釋 62)

(23) 경찰은 은행 측에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 V. 논의의 확장과 남는 문제

신문 텍스트라는 특정 장르의 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문법 형태를 찾고 해당 문법 형태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한 본고의 논의는 수사 문법(Kolln, 2003) 혹은 체계 기능 언어학 (Halliday, 1994)의 발달과 관련된 일련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 문법에 대해 알면 언어 활동을 영위하면서 무엇을 더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주목(남가영, 2009: 314)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기능 문법은 사회학을 향한다(Fairclough, 1995: 29)'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 본고의 논의는 문법이 사회 속에서 생성되고 소통되는 의미의 기제로 기능함을 전제로 한다. 문법이야말로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 형식으로 실현시키는 장치(Martin & Rothery, 1993: 137)이기 때문이다.

주지하였듯이, 신문 텍스트는 일정한 사건이나 사태와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학습자는 신문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서 각각의 사태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 해야 해당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이해한 텍스트의 의미를 그것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다루어야만 비로소 본질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본고에서 신문 텍스트의 장르적 표지로 도출한 '-도록 하-'의 경우, IV장에서 밝힌 이유들로 인해 주체들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장치이다. 때문에 신문 텍스트의 생산자는 의도적으로 '-도록 하-'라는 언어 장치에 자신의 의도를 숨겨 표현할 수 있으며, 비록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관행에 따라 주체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장

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sup>41)</sup> 따라서 교육의 국면에서는 학습자들이 '-도록 하-'를 중심으로 문장 속에서 주체들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따져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4) ⑦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 지역 민형사 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이 관할 지역인 대법관이나 대검찰청에서 근무한 검사는 퇴직 후 1년간 모든 민형사 소송을 맡을 수 없다. 또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⑤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⑥ 변협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하는 등 자율적으로 ⑦ 제재하도록 했다(동아일보, 2010. 3. 23.).

예컨대 (24)의 신문 텍스트에서 ⑦의 서술어 '제재하다'의 주체를 ⑥ '변협'으로, '하다'의 주체를 ⑦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로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제재하다'의 주체를 ⑤ '법무부장관'이나 ⑦ '한나라당 사법

41) 이 지점에 대해 사건의 주체를 명료하게 드러내야 하는 신문 텍스트에서 오히려 주체 오인식이 일어나기 쉬운 '-도록 하-'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주신 심사위원이 계셨다. 현 수준의 논의로는 이에 대해 명백한 답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고의 논의에서와 같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범박하게 표현하면, 신문 텍스트에서는 사동의 의미를 최대한 약화시켜 주체를 은폐하고 사태를 단일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도록 하-'를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신문 텍스트 생산자에게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혹은 장르적으로 '-도록 하-'가 쓰이는 양상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아가 신문 텍스트에서의 인용의 문제와 여기에 개재하는 구어, 문어적 속성 역시 '-도록 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 수준의 생각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제도개선특위'로 오독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 ㉡, ㉢ 주체들 사이의 사동 관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24)의 경우 '제제를 하도록 만든' 주체인 ㉠이 ㉏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주체와 서술어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이렇듯 특정 텍스트를 읽어낼 때, 그 텍스트의 장르적 표지로 기능하는 문법 장치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개별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들을 단순히 분석하여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별 언어 형식들이 표현 및 이해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남가영, 2009: 331)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문법 요소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에 내재된 필자의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이 자칫 문법 지식 목록을 학습자들이 전적으로 수용할 것만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존스(Johns, 1997: 17-18)의 지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이 보일 수 있는 이해나 수용 과정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존스(Johns, 1997) 역시 지적했듯이, 이때의 학습자는 일정한 규칙이나 지식 목록에 전적으로 얹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협상'하며 자신만의 의미를 도출해 가는 능동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 반영되었을 때, 문법과 독서가 만나는 교실은 텍스트, 필자(독자)의 역할, 그리고 맥락을 연구하는 실험실(Johns, 1997: 19)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격적으로 언어 자료 목록을 제시하면서도, 해당 언어 자료와 그 안에서 다루는 문법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못한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상의 기술적 실수라기보다는 관련 연구 성과가 축적되지 않았기에 초래된 것이라는 지적(김은성, 2008: 359)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텍스트+문법'의 실증적 내용 요소들을 채워나갈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연구들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교육 내용들을 체계화·위계화하기 위한 연구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문 텍스트와 관련하여 축적된 많은 연구 성과들 중에서 정보의 선별적 선택 문제(김봉순, 1999), 어휘 차원의 표현 문제(김봉순, 1999; 신명선, 2002), 인용의 문제(김봉순, 1999), 수동화의 문제(신명선, 2002), 사실과 의견의 구분 문제(권이은, 2010; 주세형, 2010), '-(다)는 것이다'라는 표지에 드러난 발화 주체의 문제(남가영, 2009) 등의 내용 요소들을 독서의 내용 요소와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이들 사이의 일정한 위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방향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텍스트와 문법의 만남을 통한 교육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은 물론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실천 능력(신명선, 2005: 375)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이은(2010), 「사실 문장 요소의 체계화 및 지도 방안 연구-사실과 의견 구별 하기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 외(1999), 『국어 지식 탐구』, 박이정.
- 김봉순(1999), 「신문 기사에 반영된 필자의 주관성」, 『텍스트언어학』 제7집, 한글텍스트언어학회, pp.57-88.
- 김승곤(1986), 「이음씨끝 '-계'와 '-도록'의 의미와 통어적 기능」, 『국어학신연구』 1(약천 김민수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탑출판사.

---

\* 이 논문은 2010. 5. 10. 투고되었으며, 2010. 5. 17. 심사가 시작되어 2010. 5. 28.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0. 6. 1.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김은성(2008), 「국어 문법교육에서 ‘텍스트’ 처리의 문제」, 『국어교육학 연구』 제33집, 국어교육학회, pp.333-364.
- 김재봉(1990), 「접속어미 ‘-도록’과 선어말어미 ‘-겠’의 쓰임에 대하여」, 『새국어교육』 제46집, pp.105-114.
- 김재윤(1983), 「‘-도록’의 통사적 제약 및 의미 분석」, 『국어교육』 제46집, 한국어교육학회, pp.255-272.
- 김혜성(1993),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18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pp.63-79.
- 김혜정(2007),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읽기 쓰기 영역의 선정 내용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 및 외연 검토」,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pp.299-335.
- 남가영(2007), 「문법교육론 자리매김의 두 방향-문법교육 담론의 생산적 읽기 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연구』 제19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p. 469-506.
- \_\_\_\_\_ (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9),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향-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 다’ 구문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형태론』 제11권 2호, 박이정, pp. 313-334.
- 남영신(2005), 『한국어 용법 핸드북』, 모멘토.
- 박진용(1998), 「국어과 교육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청람어문학』 제2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261-292.
- 박진호(2003), 「한국어의 동사와 문법 요소의 결합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수(1988), 「어미 ‘-게’와 ‘-도록’의 대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13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23-52.
- 석주연(2006), 「‘-도록’의 의미와 문법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어의미학』 제19집, 한국어의미학회, pp.109-135.
- 송현정(2010), 「문법 과목의 영역 구조와 내용」, 『국어교육』 제131집, 한국어교육학회, pp.231-254.

- 신명선(2002),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읽기 방법의 설계에 대한 시고」, 『국어 교육학연구』 제14집, 국어교육학회, pp.235-264.
- \_\_\_\_\_(2005), 「텍스트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24집, 국어교육학회, pp.361-384.
- \_\_\_\_\_(2006a), 「통합적 문법교육에 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제31집, 한국어학회, pp.245-278.
- \_\_\_\_\_(2006b),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제38집, 배달말학회, pp.151-180.
- \_\_\_\_\_(2008), 「읽기 교육과 문법」,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pp.527-546.
- 양명희(1990), 「현대국어 동사 ‘하’의 의미와 기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령(2005), 「연결어미의 접속 기능에 대하여」, 『문법교육』 제3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87-105.
- 유현경(2006), 「형용사에 연결된 어미 ‘-게’ 연구」, 『한글』 제273집, 한글학회, pp.99-123.
- 윤평현(1981), 「‘-도록’의 의미와 문법」, 『한국언어문학』 제20집, 한국언어문학회, pp. 27-51.
- \_\_\_\_\_(2005), 「현대국어 접속 어미 연구」, 박이정.
- 이관희(2008), 「품사 교육의 위계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영(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텍스트 유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텍스트언어학』 제22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49-276.
- 이양혜(1998), 「‘-도록’의 기능적 특징」, 『외대어문논집』 제13-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어문학연구소, pp.53-75.
-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1983), 「‘-도록’의 기능과 의미 유형 고찰」, 『한글』 제181호, 한글학회, pp.39-57.
- 이은희(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게’와 ‘-도록’ 연구-코퍼스에 근거한 사용 실태 분석과 그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기(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실행 방안」, 『청림어문

- 교육』 제36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81-108.
- 이희자·이종희(2006), 「어미·조사 학습자용 사전」, 한국문화사.
- 장광군(1998),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월인.
- 조국현(2001), 「텍스트 종류 연구의 과제 및 절차」, 『독일문학』 제42권 3호, 한국독어독문학회, pp.401-422.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의 국어과 전문성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37집, 국어교육학회, pp.469-497.
- 최지현(2007),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7~10학년을 중심으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제1집, 우리말교육현장학회, pp.211-237.
- Fairclough, N.(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gman.
- Halliday, M. A. 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 Johns, A. M.(1997), *Text, Role, and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app, Peter & Wakins, Megan(2005), *Genre, Text, Grammar*, Univ. of Washinton Press, 주세형 외 역(2007), 「장르, 텍스트, 문법」, 박이정.
- Kolln, M.(2003), *Rhetorical Grammar*, Longman.
- Martin & Rothery(1993), "Grammar: Device of Making Meaning in Writing, The Powers of Literacy", *a Genre Approach to Teaching Writing*, Univ. of Pittsburgh Press.

## ■ 국문초록

###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 탐색

- 신문 텍스트에 쓰인 '-도록 하-'와 '-게 하-'를 중심으로

이관희

텍스트와 문법의 정합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체계로서의 문법이 아닌, 그러한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텍스트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리로서의 문법이 탐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구현해 놓은 '숨겨진 의도'를 발견하고 심층적·비판적으로 텍스트를 읽을 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II장에서는 신문 텍스트 말뭉치를 분석하여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게'와 '-도록', '목적성 사동'의 의미를 지니는 '-게 하-'와 '-도록 하-' 모두 전자에 비해 후자가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도록', '-도록 하-'를 신문 텍스트의 장르적 표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또한 III장에서는 바꾸어 써도 무방함에도 '-게 하-'가 아닌 '-도록 하-'를 선택하는 필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모어 화자가 문장의 의미를 인식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어 화자는 '-게 하-'가 쓰인 문장에 비해 '-도록 하-'가 쓰인 문장에서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도록'은 선행절 주체의 의지를 강화한다는 점, '-도록 하-' 구문의 오용이 사동성의 약화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선행절 주체가 지녀야 할 의지성이나 피사동성이 후행절 주체로 잘못 이양되어 '후행절 주체+선행절 서술어'의 단일 사태로 '-도록 하-'가 쓰인 문장을 오독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논구하였다.

[주제어] 텍스트 읽기, 신문 텍스트, 문법, '-도록 하-', '-게 하-', 주체 단일화

## ■ Abstract

### A Study on Comprehension of texts by Grammar knowledge

– Focusing on form ‘-dorok ha-’ and ‘-ge ha-’ in newspaper texts

Lee, Kwan Hee

‘Comprehension of texts by using grammar knowledge’ is meaningful in that grammar knowledge is redescribed so that learners can use it to comprehend texts productively.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related this perspective. That is to say, we are up to discuss comprehension methodology by using grammar knowledge as an example.

For this,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the functions of conjunctive endings ‘-dorok’ and ‘-ge’ which are used in newspaper texts. Prior this, we counted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dorok’, ‘-ge’ and ‘-dorok ha-’, ‘-ge ha-’ within the newspaper texts(chapter 2). Upon investigation, ‘-dorok’, ‘-dorok ha-’ is more frequently used than ‘-ge’, ‘-ge ha-’ and this means that grammatical form ‘-dorok’, ‘-dorok ha-’ is one of the linguistic expressions which make newspaper texts as newspaper-like texts. In chapter 3, the aspects of readers’ cognizance of agent are researched. In chapter 4, we described the semantic speciality of ‘-dorok ha-’. Through this process, we can expect that if leaners take note of grammatical form ‘-dorok ha-’, they can grasp the agent of sentence rightly. Since grammatical form ‘-dorok ha-’ is linguistic expression which makes confusion of agents in sentences.

[Key words] Comprehension of texts, Newspaper texts, Grammar, ‘-dorok ha-’, ‘-ge ha-’, Single agent